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75 |
|----------|-----|

2014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6일, 김현아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아 의원)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제2외국어교육의 목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개방적 인사고를 기르자는 데 있음. 장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제2외국어 교육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외국어 학습권의 축소와 대입반영과목에서의 배제는 기존 교

육과정 ‘총론’에서 언급한 바, ‘세계와의 소통’ 및 ‘다양한 문화가치 수용’ 능력의 배양이라는 인간상 구현이나 교육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교육환경을 초래함.

- 기존의 교육과정은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에서 제2외국어를 “생활교양”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학습단위의 축소와 함께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만들어 제2외국어교육의 파행을 유발시켰음. 또한 ‘비입시과목’으로 분류되어 ‘제2외국어’ 과목의 교실수업붕괴가 심각 함.
-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어교육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역량으로 작용함. 이런 맥락에서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는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공교육의 중대한 책무임.
- 따라서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생활교양 영역’에서 ‘외국어 영역’으로 환원시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필수선택’ 과목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건의안의 제안취지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제2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세계화시대에 맞는 개방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하자는 것으로,

- 건의안의 형식요건상 주문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건의사항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추하여 추측하건대 첫째,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둘째, 중등교사 채용요건으로 제2외국어 및 국어·영어·사회과목의 복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됨.
- 먼저 제2외국어를 '생활교양영역'에서 '외국어영역'으로 환원시켜 영어 이외의 외국어과목을 '필수선택' 과목으로 개편하도록 건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 현재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교과영역은 기초영역, 탐구영역, 체육예술영역, 생활교양영역 등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초영역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반드시 각각 10단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탐구영역에서는 사회(역사/도덕)와 과학을 각각 10단위, 체육예술영역에서는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을 각각 10단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생활교양영역에서는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중에서 선택하여 16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영역에서의 국어, 수학, 영어와 달리,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건의안에서 촉구하는 제2외국어의 '필수선택' 과목으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첫째, 제2외국어의 기초과목으로의 분류, 둘째, 별도의 '외국어영역'을 신설하여 필수이수단위 부여, 셋째,

생활교양영역의 각각의 과목에 필수이수단위를 각각 부여하는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 현행 | | |
|----------|-------------------|-----------|
| 교과 영역 | 교과(군) | 필수 이수단위 |
| 기초 | 국어 | 10 |
| | 수학 | 10 |
| | 영어 | 10 |
| 탐구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10 |
| | 과학 | 10 |
| 체육 | 체육 | 10 |
| 예술 | 예술(음악/미술) | 10 |
| 생활 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소계 | | 86 |
| 학교자율과정 | | 94 |
| 창의적 체험활동 | | 24(408시간) |
| 총 이수단위 | | 204 |

| 2015 개정안 | | | |
|----------|-------------------|-----------|----------------------|
| 교과 영역 | 교과(군) | 필수 이수단위 | 공통 과목(단위) |
| 기초 | 국어 | 10 | 국어(8) |
| | 수학 | 10 | 수학(8) |
| | 영어 | 10 | 영어(8) |
| | 한국사 | 6 | 한국사(6) |
| 탐구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10 | 통합사회(8) |
| | 과학 | 12 |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 체육 | 체육 | 10 | |
| 예술 | 예술(음악/미술) | 10 | |
| 생활 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 소계 | | 94 | |
| 학교자율과정 | | 86 | |
| 창의적 체험활동 | | 24(408시간) | |
| 총 이수단위 | | 204 | |

- 다만 지난 9월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기초 영역에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이외에 6단위의 한국사가 새롭게 포함되고, 탐구영역 중 과학과목의 이수단위가 2단위 증가된 것 이외에 체육예술영역과 생활교양영역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당분간 교육부 차원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분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능개편안과 연동되지 않는 고교 교육과정 개정은 동 건

의안이 요구하는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이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수능필수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포함 시키고자 하는지가 분명치 않음.

- 한편 서울시 소재 2014년도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어(82.7%) 과목 개설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국어(70.1%), 프랑스어(14.8%) 순인데 반해, 2015년도 수능능력평가 제2외국어 선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베트남어(11,409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랍어(3,729명), 일본어(2,662명) 순으로 파악되는 바, 수능능력평가 과목 선호도와 실제 과목개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현황

(2014학년도 입학생 기준)

| 과목명 학교유형 |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 학교 수 |
|-------------|-------|--------|--------|--------|--------|--------|-------|--------|------|
| 일반고 | 16 | 37 | 2 | 155 | 171 | - | - | - | 184 |
| | 8.7% | 20.1% | 1.0% | 84.2% | 92.9% | 0.0% | 0.0% | 0.0% | |
| 자공고 | 3 | 2 | 2 | 19 | 18 | - | - | - | 19 |
| | 15.8% | 10.5% | 10.5% | 100.0% | 94.7% | 0.0% | 0.0% | 0.0% | |
| 자사고 | 6 | 6 | 1 | 24 | 25 | - | - | - | 25 |
| | 24.0% | 24.0% | 4.0% | 96.0% | 100.0% | 0.0% | 0.0% | 0.0% | |
| 특목고 | 2 | 2 | 1 | 7 | 8 | - | - | - | 19 |
| | 10.5% | 10.5% | 5.3% | 36.8% | 42.1% | 0.0% | 0.0% | 0.0% | |
| 특성화고 | - | - | - | 18 | 41 | - | - | - | 70 |
| | 0.0% | 0.0% | 0.0% | 25.7% | 58.6% | 0.0% | 0.0% | 0.0% | |
| 전 체 | 27 | 47 | 6 | 223 | 263 | - | - | - | 317 |
| | 8.5% | 14.8% | 2.6% | 70.1% | 82.7% | 0.0% | 0.0% | 0.0% | |

- 결국 이는 학생 개개인이 대학입시를 위한 제2외국어 교육을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2015년도 수능 제2외국어

| 제2외국어 | 선택자 수(명) | 비고 |
|-----------------|----------|---------|
| 독일어 I | 892 | |
| 프랑스어 I | 1,003 | |
| 스페인어 I | 749 | |
| 중국어 I | 1,823 | |
| 일본어 I | 2,662 | |
| 러시아어 I | 394 | |
| 아랍어 I | 3,729 | |
| 기초 베트남어 | 11,409 | |
| 기타 | 1,962 | (한문 I) |
| 제2외국어 선택자 계 | | 24,623 |
| 2015 수능 원서접수 총계 | | 143,998 |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제2외국어의 필수선택과목으로의 분류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동시에 일선학교에서는 복수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거나 방과후학교 등을 통하여 제2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및 수요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중등교사 채용조건으로 제2외국어 및 국어·영어·사회과목의 복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시 복수전공자(복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에 가산점(10%)을 부여하고 있는 등 별도의 우대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바,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해 별도로 담보되어 있지 않는 한 교원임용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는 현행 법령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 건의사항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건의내용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의안 전반에 대한 문구를 정비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75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의사항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건의내용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의안 전반에 대한 문구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건의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의안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현재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은 영어에 편중되어 있다. ‘다양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언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전수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했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계산법을 의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영어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 권역에 널리 퍼져 있어, 장래에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준비를 위해서라도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국제기구와 외교 분야에서 요구하는 외국어역량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지불하는 ODA 분담금에 비해 국제기구에 채용된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자들이 영어 밖에 모르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2~3개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대입수능시험에서 아랍어를 비롯한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결국은 공교육과정의 등한시 한 제2외국어 학습을 사설학원에서 배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공교육의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사교육에 의존한 결과이다.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또 희망에 따라 사교육을 통한 제2외국어의 교육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다문화교육방식은 한쪽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복수의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방과후학습과정을 통한 제2외국어 과목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수정안 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p><u>‘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u></p> | <p><u>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u></p> |
| <p>● 현재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은 영어에 <u>편중이 되어</u> 있다. ‘다양한 글로벌 <u>인재양성</u>’이란 공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언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u>전수 받는 ‘학습권’</u>을 획득하여야 <u>함</u>. 산업화시대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했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계산법을 의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u>있음</u>. 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영어권에만 <u>국한 되어</u>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 권역에 널리 퍼져 있어, 장래에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준비를 위해서라도 제2외국어 <u>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함</u>.</p> <p>● 국제기구와 외교 분야에서 요구하는 <u>외국어 역량</u>은 영어뿐만 아니라 <u>제 2외국어</u>도 포함되어 <u>있음</u>. 한국이 지불하는 ODA 분담금에 비해 국제기구에 채용된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자들이 영어 밖에 모르는 이유도 크게 <u>작용함</u>. <u>선진국 상위수준의 대학일수록 2~3개의 외국어과목의 점수를 입학 요건으로 지정. 장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함</u>.</p> <p>● 대입수능시험에서 아랍어를 비롯한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결국은 공교육 과정이 등한시 한 제2외국어를 사설학원에서 배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u>형국임</u>. 이는 공교</p> | <p>현재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은 영어에 <u>편중되어</u> 있다. ‘다양한 글로벌 <u>인재양성</u>’이라는 공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언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u>전수받을 수 있는 ‘학습권’</u>을 획득하여야 <u>한다</u>. 산업화시대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했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계산법을 의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u>있다</u>. 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영어권에만 <u>국한되어</u>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 권역에 널리 퍼져 있어, 장래에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준비를 위해서라도 제2외국어 <u>교육의 정상화는 필수불가결하다</u>.</p> <p>국제기구와 외교 분야에서 요구하는 <u>외국어 역량</u>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u>제2외국어</u>도 포함되어 <u>있다</u>. 한국이 지불하는 ODA 분담금에 비해 국제기구에 채용된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자들이 영어 밖에 모르는 이유도 크게 <u>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u>. <u>선진국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2~3개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u>.</p> <p>대입수능시험에서 아랍어를 비롯한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결국은 공교육 과정이 등한시 한 제2외국어를 사설학원에서 배워서 수능시험을 <u>치르는 것 때문이라 볼 수</u></p> |

육의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또 희망에 따라 사교육을 통한 제2외국어의 교육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음.

● 성공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과목을 필수선택 과목으로 재지정 하여야 함.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다문화교육방식은 한쪽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 따라서 공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제2외국어 교과를 '생활교양' 분류에서 '필수선택'으로 재지정 해 줄 것을 촉구함.

2. 권고사항

○ 중등교사 채용요건으로, 제2외국어 및 국어/영어/사회 과목의 복수자격증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있다. 즉 이는 공교육의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사교육에 의존한 결과이다.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또 희망에 따라 사교육을 통한 제2외국어의 교육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다문화교육방식은 한쪽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복수의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방과후학습과정을 통한 제2외국어 과목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현재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은 영어에 편중되어 있다. ‘다양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언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전수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했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계산법을 의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영어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 권역에 널리 퍼져 있어, 장래에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준비를 위해서라도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국제기구와 외교 분야에서 요구하는 외국어역량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지불하는 ODA 분담금에 비해 국제기구에 채용된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자들이 영어 밖에 모르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2~3개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대입수능시험에서 아랍어를 비롯한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결국은 공교육과정이 등한시 한 제2외국어를 사설학원에서 배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공교육의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사교육에 의존한 결과이다.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또 희망에 따라 사교육을 통한 제2외국어의 교육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다문화교육방식은 한쪽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복수의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방과후학습과정을 통한 제2외국어 과목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